

도내 '사전투표' 총선 가장 큰 변수 예상

각 당 초반 승부처로 판단 '숨은표' 잡기 문자메시지·카톡 등 득표활동 주력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도내 각 선거구에서 8일부터 실시될 '사전투표'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각 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를 초반 승부처로 판단하고 투표 참여 여부와 지지 독려 전화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숨은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카톡 등 SNS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과 9일 2일간 도내 각 읍면동 241개소에 4.13총선을 위한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이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공공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들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개선된 '사전투표'의 특징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선거당일인 13일은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각 후보캠프에서는 사실상 사전투표에서부터 총선 투표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득표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1-2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상

황에서 투표율 1~2%만 높아져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4년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전북의 투표율은 16.0%로 전남 18.0%에 이어 전국 2위(전국평균 11.47%)를 차지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사전투표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가 무시하지 못할 변수가 된 셈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투표율은 61.2%에서 제8대에는 47.5%, 19대에는 53.6%로 폭 떨어졌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로 인해 약 5% 정도의 투표율을 증가를 기대하면서 투표율이 17대처럼 6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20~30대의 정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헬조선과 금수저-흙수저로 대변되는 그들만의 정치에 대한 환멸이 이들을 현실 정치에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정설도 이번 총선에서 지켜보아할 대목이다. 이미 전북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 당이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한 치 물러섬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때문에 이들 젊은 세대의 투표 향방이 곧 전북의 정치 지형과 나아가 전국 야권 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란 정치적 셈법이 실력력을 얻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사정상 부득이 투표를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관위 김제시부안군 등 3곳 총선 4차 과열·훈탁지역 지정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남원시삼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3개 선거구를 제20대 총선 4차 과열·훈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선관위는 이번에 과열·훈탁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해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포·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난 2월 19일 전주시덕진구(전주시병), 익산시, 남원시순창군을 1차 과열·훈탁지역으로, 3월 3일에는 전주시, 남원시삼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을 2차 과열·훈탁지역으로, 3월 21일에는 전주시, 남원시삼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을 제3차 과열·훈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김중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정세균 서울 종로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최선 다해 총선승리 도와 내년 정권교체 이루겠다”

더민주 김홍길 국민통합위원장 전북지역 후보자 지원유세

더불어민주당 김홍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에 꼭 최선을 다해서 총선승리에 도움 드리고 내년 정권교체까지 달려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전주 모래내 시장을 찾아 전북지역 총선후보자 지원유세를 펼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춘진(김제·부안), 김윤덕(전주 갑), 최형재(전주 을), 김성주(전주 병), 김윤태(군산), 허정열(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임실·순창)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 전주 시민들에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4.13총선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과 경제운영 실패를 심판하고 경제 살리기에만 전념해야 하는 데 제 3당인 국민의 당이 나타나서 새누리당의 심판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야권분열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그들은 새정치 한다면서 이곳 전북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아닌 당선가능성만 두고 원칙도 없이 구태정치를 일삼는 정치인들을 공천했다"며 일부 국민의 당 후보들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에서 20석~30석을 새누리당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오로지 자신의 목적인 탈성하면 된다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전북지역 국민의 당 후보들은 야당후보라 하면서 한바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새누리당 2중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이번 총선에 나선 이유는 그런 구태정치를 바로잡고 김대중 정당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온갖 구태정치를 일삼는 사람들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김대중 정신을 선거에 약속하는 국민의 당 후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최경환 대구에서 공천파동 사과

새누리당 대구 지역 공천을 받은 11명의 공천자들과 이들을 견인하고 있는 친박 회장 최경환 의원이 6일 공천 파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을 꿇었다.

대구·경북선대위원장을 맡고있는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을 비롯해 김순주, 윤재호, 김상훈, 박상도, 정태욱, 이인선, 서경호, 박대훈, 양병모, 정종섭, 조원진 의원 등 대구 공천자 11명은 이날 오후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대구지역 후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경북대 교수 출신으로 이번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19번을 배정받은 조병희 후보와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입후보가 좌절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함께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4.13 선거 RUN·RUN·RUN

김무성 대표, "변화의 봄바람 현실로 바뀌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20대 총선 전북 유세에서 '변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의 봄바람을 현실로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역설했다.

전북지역 새누리당 총선 후보지원 유세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6일, "20년 전에 강현욱 의원이 당선된 이후 전북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새누리당 후보들의 무덤이 되어 왔다"며 "28년 만에 순천에서 당선 후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산 폭탄을 가져 온 만큼 전북에서는 승리의 소식이 없어서 (새누리당이) 예산 폭탄을 터뜨리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실제로 지난 16년간 전북의 발전을 위촉시킨 야당은 전북 도민의 표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막상 도민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낡아 빠진 정치 싸움만 하고 있다"며 "30년 간 전북은 민주당을 지지했었지만 전북 도민에게 들어온 것은 예산 증가율은 전국 꼴찌, 낙후 전북이라는 꼬리표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과 문체부 차관을 지낸 박종길 후보는 저와 함께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추진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에 박종길 후보는 "익산을 저의 가족처럼 애정을 갖고 우리지역을 살기 좋은 터전으로 바꾸어 가는 일은 바로 우리지역에서 나온 인재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민과 회노예를 함께 하면서 과거 친란한 익산의 수출공단의 옛 명성을 되찾아, 떠나는 익산에서 찾아오는 익산으로 소득과 인구증가 정책을 펼쳐 나아갈 적절한 마음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전희재 후보, "김무성 대표는 전북사랑 명예도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전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전희재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전 후보는 김 대표를 소개하면서 "전주시 갑에 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원 유세오신 김무성 대표가 전북을 가장 사랑하는 명예도민"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국회위원에 당선된다면 공약사항을 가장 책임있게 해결해주시길"이라 소개했다.

유세에서 김 대표는 "전북은 지난 30여년동안 오직 민주당만이 독점해왔으며, 우리 새누리당은 지역에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50개 선출직에 단 한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곳 전주시 갑에 출마한 전희재 후보는 전주 부시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행정과 정치경험을 갖춘 깨끗하고 정직한 검증된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희재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 후보가 약속한 선거 공약을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주시 갑 시민들에게 전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김무성 대표

강팔문 익산시장 후보, 1,2산업단지 디지털단지로 재생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익산시장 후보 (이하 강 후보)는 "70년대 도시외곽에 들어선 제 1,2산업단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주거공간과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매년 악취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 1,2산업단지를 구로디지털단지 모델로 산업단지를 재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후보는 "국토개발 전문가로 제 1,2산업단지는 국토부 산업단지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토지이용계획 개편 등을 통한 도시전환 가능 향상' 방향으로 추진하여 기업을 제 3산업단지 등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후보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설비라인이 노후화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비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 당선되면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시행자로 IH를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익산시는 악취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매년 악취문제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강 후보는 "구로디지털단지를 모델로 하여 제 1,2 산업단지도 디지털단지로 조성하여 연구소와 IT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인구유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강 후보는 "제 1, 2, 3산업단지 재생 효과는 ▲악취문제 해결 ▲제 3산업단지 미분양 해결로 부채를 해결 ▲도시를 도시답게 ▲일자리 창출 ▲기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가능'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KTX개통과 수서발 KTX개통을 앞두고 서울과 익산의 거리는 약 1시간대로 좁혀져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소와 IT관련 기업들의 건물 임대료를 고려할 때 이전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국토부와 산자부에 건의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주거,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익산의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하고 익산을 새로운 도시로 디지털에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시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강팔문 후보

조배숙 후보, "익산의 가치를 두 배로 키우겠다"

기호3번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익산)는 익산의 가치를 두 배로 키우겠다며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익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조 후보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신라의 왕도 경주가 영남권의 대표적 역사문화 관광도시가 되었듯 백제의 왕도 익산을 호남권의 대표적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만들어 익산의 가치를 두 배로 키워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조 후보는 익산 역사유적지구 고도 보존 육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백제왕궁과 미륵사지 복원 및 미륵사지 인근 군부대와 사적현역장의 이전 및 변경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3선 중진위원을 넘어 4선의 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 멈춰버린 익산발전의 엔진을 다시 살려 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배숙 후보

이용호 후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제안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임실·순창·남원)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제 20대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당초 투표를 제고하는 취지에서 벗어나 불법선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 후보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 후보는 이에따라 선관위의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다.

이날 이 후보는 "현직지방의원들이 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이장회의에서 특정정당소속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자체조사를 한 후 위법사태가 발견될 경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선거대책위는 "이용호선대위는 앞으로도 자체적인 부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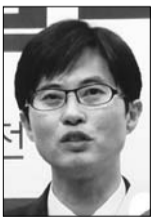
이용호 후보

강상구 후보, "단골 새만금 개발 공약 비판"

정의당 강상구 국회의원후보(김제 부안)는 6일 "재방송 영화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새만금 개발 공약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상구 후보는 "첫째로 새만금이 개발되면 지역의 작은 회사들도 새만금 개발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는 새만금 지역에서 기업들이 얻을 것으로 보이는 초과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지역 상생 발전 기금같은 부분을 조성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에 생길 많은 일자리에 지역청년의무공용제를 도입해 지역의 젊은이들이 새만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새만금 개발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다른 후보들은 몇 십년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강상구 후보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